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구조분석 †

-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Influencing Adjustment to School Life i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 Daegu·Gyeongbuk Area-

박계란 · 이지민*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Park, Kei-Ran · Lee, Ji-Min*

Dept. of Family and Housing Studies, Yeungnam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attitude,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levels of adjustment to school life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Participants were 177 elementary school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1st to 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in the Daegu-Gyeongbuk area of South Korea.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Parenting attitude,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had direct effects on levels of children's adjustment to school life. 2) Parental attitudes and social support had direct effects on children's levels of self-esteem. 3) Parental attitudes and social support also had indirect effects on levels of adjustment to school life of these children. This study suggested that various concern and supports from multi level of society are required to improve adjustment to school life i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Keywords: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parental attitudes, social support, self-esteem, adjustment to school life

I. 서론

최근 국내의 인구이동의 증가, 외국인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혼인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로 구성된 다문화 가정과 그 자녀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1990년 후반과 2000년대 초반 결혼이주여성과 한국 남성 사이에서 출생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공교육을 받게 됨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는 급격히 증가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2009)의 보고에 의하면, 정규학교에서 공교육을 받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는 2009년 41,784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중 초등학생 비율이 65%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미취학 아동의 수를 고려해 볼 때 앞으로 2~3년 내 다문화 가정의 초등학생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학령기 다문화 가정 아동의 증가로 이들의 학교생활적응문제는 새로운 관심의 대상으로

† 이 연구는 2010년 대구경북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Lee, Ji-Min

Tel: 053-810-2866

E-mail: ljimin@ynu.ac.kr

부각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은 부모의 문화와 민족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부모의 이중문화로 인한 문화적 갈등과 정체성 혼란,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부모로 인한 적절한 언어습득의 어려움, 외모의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학습과 학교생활적응에서 일반 가정의 아동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민애경, 2005; 오성배, 2005; 한정에, 2009). 교육과학기술부(2009)와 한국일보(2009)의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중학교 미진학 및 중도탈락률은 39.7%로 일반 가정 아동의 약 10배에 해당되며, 점차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이 초등학교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학교 부적응은 청소년기의 심리적 위축과 가치관 및 정체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이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심리적·사회적 압박과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학교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미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규범과 역할을 배우며,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에 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이다(이지민, 2009; 홍정미, 2008). 아동에게 있어 학교는 친구와의 만남으로 올바른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는 곳으로 경험된다.

학교생활적응이란 학교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바람직한 사회적, 정서적 행동을 하는 정도를 의미하며(문은식, 2005; 민하영, 권기남, 2004), 이를 통해 원만한 대인관계, 긍정적 자아개념, 바람직한 행동 특성, 학업성적 향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개인의 성장이 이루어진다(정은주, 2005). 이러한 점에서 활동시간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령기의 아동들에게 학교에서의 적응은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활발히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 등을 포함한 개인적 변인(신혜정, 2007; 안은미, 2007; 이지애, 2008), 가족관련 변인(신효선,

2008; 전푸르나, 2010; 하미화, 2009; 홍정미, 2008), 사회적 변인(고유미, 2009; 박은혜, 2009; 서정혜, 2009; 이영주, 2007)들이 연구되어져 왔다.

이들 변인 중, 다문화 가정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이 가족과의 상호작용이나 관계 형성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가족관련 변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교생활적응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연구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강유진, 문재우, 2005).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람으로, 자녀들은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학습하고 자신의 역할을 인식한다. 또한 부모의 생활양식 및 행동양식을 모방함으로써 사회 규범에 맞는 행동을 학습하기 때문에, 부모-자녀관계는 성공적인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장휘숙, 2000; 최옥희, 2007), 이러한 상호작용은 성인이 된 후의 행동이나 정서 및 인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은아, 2009).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가정환경 속에서 자란 아동이 학교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영림, 1992; 최진도, 2005). 일반 가정 아동들과 유사하게,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수용적이며 자율적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소 일관적인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박은혜, 2009; 하미화, 2009; 홍정미, 2008). 특히 다문화 가정의 경우, 부모가 자신의 국가에서 서로 다른 문화의식구조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를 양육, 교육할 때에도 다른 방식의 양육태도와 교육가치관을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두 나라의 문화가 혼재된 가정교육과 한국의 공교육을 동시에 경험하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부모를 분리하여 그 영향을 살펴본 후, 그들의 부모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부모양육태도와 더불어, 다문화 가정 아동에게 주요타인의 지지는 학교생활적응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김경란, 2007; 김오남, 2005; 이영주, 2007). 모든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서로에 대한 지지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적 지지란 타인으

로부터 받는 사랑, 관심, 이해, 도움 등의 긍정적 자원으로(문은식, 2005), 아동이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는 성인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아동에게 의미 있는 타인은 주로 가족, 친구, 교사로, 아동은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적절한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성인보다는 제한된 사회적 지지자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진, 2009). 특히 다문화 가정 아동의 경우 부모의 이중문화, 이중언어라는 특수한 가족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일반 아동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가족으로부터 지지적인 유대감을 느낀다면, 다문화적 특성에서 생길 수 있는 학교 부적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안은미(2007)와 정현영(2006) 연구를 살펴보면 가족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있어 가족은 다른 어떤 지지체계보다 중요한 지지체계로 의미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 친구와 교사는 아동의 주요 관계대상으로 이들의 지지는 가족지지와는 다른 성격의 지원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요인으로 또래, 교사와의 관계, 이들의 지지 정도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또래와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우호적일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지지적이고 만족스러울수록 학교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란, 2007; 이윤호, 2009; 전푸르나, 2010). 이는 학교생활에서 또래친구와 정서적 친밀감과 일치감을 느끼고, 교사의 칭찬과 지지를 받는 등의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학교적응은 물론 성장하여 원만한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족변인, 사회변인과 함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인적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신이 유능하고 중요하며 가치 있다고 보는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으로(이성현, 1997), 자아존중감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 학교에서 교사와 친구와의 관계 및 교육활동을 통해 형성되고 발달한다(한순옥, 손화희, 2001). 아동기에 발달한 자아존중감은 일생을 통해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아동기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발달은 매우 중요하다(최보가, 전귀연,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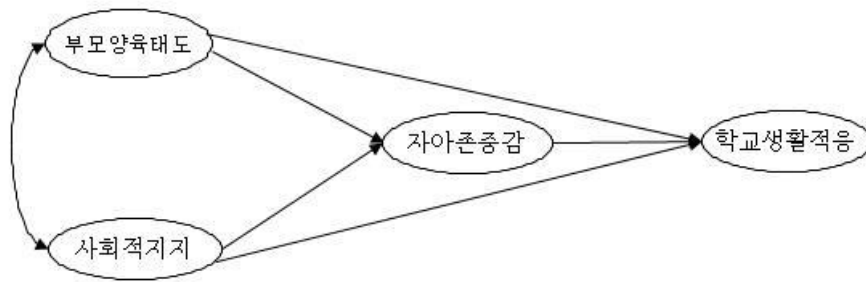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 수준과 학교생활적응은 정적상관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이 자신의 능력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행동특성이

바람직하며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순희, 2002; 송인섭, 1989; 이훈진, 1999).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일수록 학교생활적응도 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솔지, 2010; 이지애, 2007; 하미화, 2009).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인변인이며, 아동들의 학교생활뿐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아동이 지각한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때, 학교 부적응을 줄일 수 있는 한 방안으로 아동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면밀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는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유경희(201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태도와 양육환경의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은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여러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다양한 변인들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문화 가정 자녀와 관련한 학교생활적응 연구는 이들의 적응실태조사 등을 통한 교육정책의 필요성 제기 및 관련요인간의 단순한 관계만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아직까지 여러 변인간의 상호관련성과 인과관계를 살펴보거나,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최근 부모양육태도나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 양육행동 등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박은혜, 2009; 신정희, 2010)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인적 변인, 환경적 변인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인 분석을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을 선정해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설정하고, 이들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와 직·간접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델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09년 11월에 해당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다문화 가정 아동의 취학현황을 조사 한 후, 대상 초등학교의 다문화 아동 담당 교사께 전화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직접방문을 하거나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조사는 2009년 12월 7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설문내용은 10명의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 시행 후, 지학년 다문화 가정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연구대상은 대구·경상북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아동 177명으로 일반적 사항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는 Rohner(1980)가 제작한 부모양육태

도 척도를 성영혜(1992)가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수용-거부, 자율-통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율-통제 척도가 사용되었다. 설문은 부-모를 구분하여 각 5문항씩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내용은 부-모에게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일을 잘못했을 경우라도 꾸짖기보다는 애썼다고 격려해 주시는 편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어머니)는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면 내게 맡겨주신다’ 등이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임을 의미한다. 부-양육태도의 Cronbach's α 는 .70, 모-양육태도의 Cronbach's α 는 .73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이경주(1997)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 가족, 친구, 교사 지지로 총 9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의 내용은 ‘친구들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 준다’,

〈표 1〉 연구대상

| 변인 | 구분 | N(%) | 변인 | 구분 | N(%) |
|--------|----------|-----------|----------|--------|-----------|
| 성별 | 남자 | 89(50.3) | 가족형태 | 핵가족 | 123(69.5) |
| | 여자 | 87(49.2) | | 확대가족 | 48(27.1) |
| 학년 | 저학년(1~3) | 101(57.1) | 부 취업 | 있다 | 140(79.1) |
| | 고학년(4~6) | 75(42.3) | | 없다 | 32(18.1) |
| 거주지 | 도시 | 30(16.9) | 모 취업 | 있다 | 102(57.6) |
| | 농·어촌 | 147(83.1) | | 없다 | 69(39.0) |
| 모 출신국가 | 중국 | 54(30.5) | 부 학력 | 중학졸업이하 | 25(14.1) |
| | 일본 | 73(41.2) | | 고등졸업 | 81(45.8) |
| | 필리핀 | 32(18.1) | | 대학졸업이상 | 49(27.7) |
| | 베트남 | 11(6.2) | 모 학력 | 중학졸업이하 | 13(7.3) |
| | 태국 | 4(2.3) | | 고등졸업 | 72(40.7) |
| 기타 | 2(1.1) | 대학졸업이상 | 69(39.0) | | |

* 무응답의 경우, 결측치 처리를 하였으므로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우리 가족은 내가 힘들 때 도와준다’ 등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요타자가 지지적임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가족 지지 .67, 친구 지지 .67, 교사 지지 .62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이윤호(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로 전병제(1974)가 번안한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질문지(Self-Esteem Questionnaire : SEQ)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문항꾸러미 방법으로 자아존중감1과 자아존중감2를 지표변수로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꾸러미 방법은(item parceling method)은 주어진 척도하의 문항들을 두 개 또는 세 개의 꾸러미로 묶어 새로운 지표변수를 만드는 방법이다(문수백, 2009).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문항으로는 ‘나는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느낀다’,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등이며,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자아존중감1 .69, 자아존중감2 .66으로 나타났다.

4) 학교생활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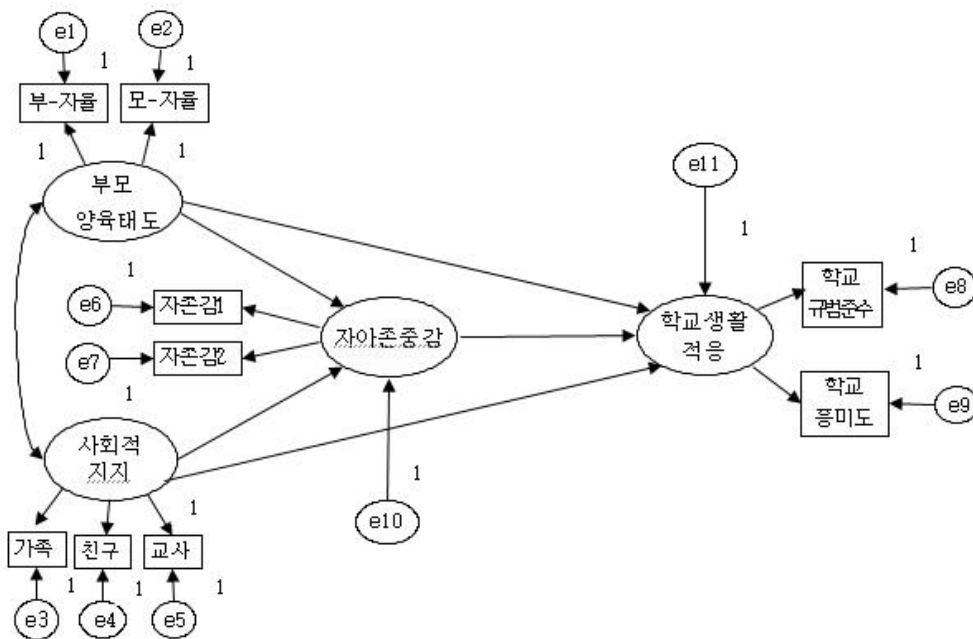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측정을 위해 박현선(1998)의 학교적응유연성의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사 후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제외시킨 결과 2요인(학교규범준수태도, 학교흥미도)으로 추출되었다. 총 10문항으로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문항으로는 ‘나는 학교생활이 즐겁다’, ‘나는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른다’ 등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산하였다.

각 요인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학교규범준수태도 .64, 학교흥미도 .73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의 원인변인으로 설정한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간의 직·간



[그림 2] 통계적 모델

접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단일척도의 경우 문항꾸러미 방법을 이용하여 각 잠재변수별로 두 개의 지표변수를 설정하였다.

부모양육태도의 경우 부-자율, 모-자율을 지표변수로 설정하여 측정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지표변수로 설정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아존중감1과 자아존중감2의 지표변수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학교규범준수, 학교흥미도를 지표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모델추정 조건에 의해 단위부하량(unit loading identification) 고정법에 따라 잠재변수에 척도를 부여한 다음 [그림 2]와 같이 통계적 모델을 설정하였다. 모델부합도는 부합도 지수 값, RMSEA, GFI, NFI를 통해 평가하였다. 그리고 모델하의 변인들 간 유의수준은 .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간접효과 역시 AMOS17.0의 Bootstrapping 절차를 사용하여 분석한 다음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설정된 통계적 모델의 추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AMOS17.0의 다변인정규분포성 검증 절차를 통해 구조방정식모델하의 9개 측정변수들에 대한 다변인정규분포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단변인별 왜도와 첨도 모두에 있어서 정규분포의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다변인정규분포성 가정 역시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AMOS17.0의 최대우도추정법(ML: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적용하여 통계적 모델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자료의 신뢰도와 상관관계, 기술적 통계를 위해서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측정변인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 통계치

통계적 모델하의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행렬 및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추정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행렬 및 평균, 표준편차

| 변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1 | 1 | | | | | | | | |
| 2 | .45 | 1 | | | | | | | |
| 3 | .13 | .14 | 1 | | | | | | |
| 4 | .13 | .14 | .31 | 1 | | | | | |
| 5 | .13 | .15 | .32 | .32 | 1 | | | | |
| 6 | .28 | .31 | .26 | .26 | .27 | 1 | | | |
| 7 | .25 | .28 | .23 | .23 | .24 | .69 | 1 | | |
| 8 | .23 | .26 | .25 | .25 | .26 | .38 | .34 | 1 | |
| 9 | .26 | .29 | .28 | .28 | .29 | .42 | .38 | .37 | 1 |
| M | 15.90 | 16.45 | 11.93 | 10.53 | 10.82 | 18.08 | 17.73 | 14.77 | 13.97 |
| SD | 2.80 | 2.94 | 2.40 | 2.40 | 2.24 | 3.43 | 3.15 | 3.18 | 2.55 |

1: 부-자율 2: 모-자율 3: 가족지지 4: 친구지지 5: 교사지지
6: 자아존중감1 7: 자아존중감2 8: 학교규범준수태도 9: 학교흥미도

2. 연구모델의 분석 결과

1) 측정모델의 부합도 평가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모델추정가능성과 부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2단계 모델추정가능성 확인절차(문수백, 2009; Kline, 2005)에 따라 최대우도추정법(ML)에 의한 측정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한 결과 <표 3>과 같다.

<표 3> 측정모델 부합도 지수

| 모델 | NPAR | DF | CMIN | NFI | SRMR | GFI | RMSEA | |
|-------|------|----|-------|-----|------|-----|-------|------|
| | | | | | | | LO90 | HI90 |
| 측정 모델 | 24 | 21 | 18.62 | .95 | .03 | .98 | .03 | .06 |

일반적으로 SEM(Structural Equation Model) 연구의 부합도 분석 결과 보고는 최소한 연구모델의 χ^2 값(CMIN), Steiger-Lind의 90% 신뢰구간 RMSEA, NFI, GFI, SRMR 등을 보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표 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부합도 지수평가에서 측정모델의 RMSEA(.03 ~ .06)를 비롯한 모든 부합도지수가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구조방정식모델의 부합도 평가

통계적 모델을 구성하는 측정모델의 모든 부합도지수가 부합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모델의 모델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대우도추정법(ML)을 통해 연구모델인 구조방정식 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구조방정식 모델의 부합도 지수

| 모델 | NPAR | DF | CMIN | NFI | SRMR | GFI | RMSEA | |
|-------|------|----|-------|-----|------|-----|-------|------|
| | | | | | | | LO90 | HI90 |
| 구조 모델 | 24 | 21 | 18.62 | .95 | .03 | .98 | .03 | .06 |

<표 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구조방정식 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한 결과 RMSEA(.03~.06), NFI=.95>.90, GFI=.98>.90 등 모든 부합도 지수 평가에서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이 자료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모델하의 모수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구조방정식 모델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 변인 | 비표준화계수 | SE | C.R. | p | 표준화계수 |
|---------------|--------|-----|------|----|-------|
| 양육태도 → 자아존중감 | .61 | .20 | 3.04 | ** | .36 |
| 양육태도 → 학교적응 | .92 | .29 | 3.13 | ** | .40 |
| 사회적지지 → 자아존중감 | .33 | .16 | 2.03 | ** | .29 |
| 사회적지지 → 학교적응 | .79 | .27 | 2.97 | * | .50 |
| 자아존중감 → 학교적응 | .23 | .10 | 2.36 | * | .34 |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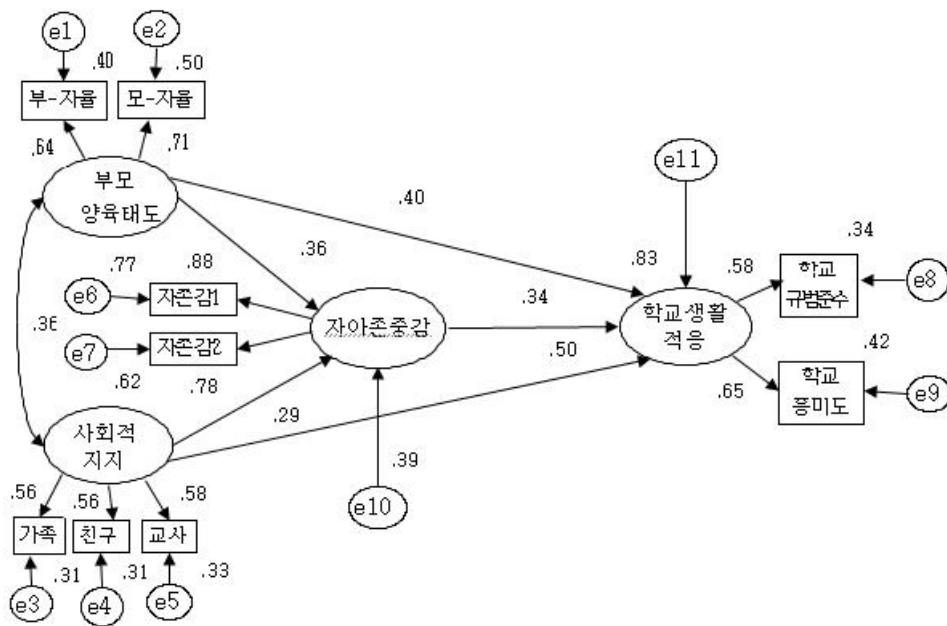
<표 5>에서와 같이, 구조방정식 모델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 결과, 변인들 간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조방정식 모델의 경로계수를 [그림 3]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6>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변인들의 직·간접 효과 분해표

| 경로 | 전체효과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
| 양육태도 → 자아존중감 | .359 | .359*** | - |
| 양육태도 → 학교적응 | .409 | .286*** | .123*** |
| 사회적지지 → 자아존중감 | .396 | .396*** | - |
| 사회적지지 → 학교적응 | .634 | .498*** | .136*** |
| 자아존중감 → 학교적응 | .344 | .344*** | - |

***p<.001

구조방정식 모델의 전체효과, 직·간접효과와 모수치를 통계적 방법에 따라 유의수준.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양육태도→학교적응, 사회적 지지→학교적응, 자아존중감→학교적응, 양육태도→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자아존중감의 경로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변인 중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



[그림 3] 구조방정식 모델의 경로계수

로 나타났다. 즉,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효과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간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측정모델과 구조모델로 나누어 모델의 부합여부와 경로계수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부모양육태도는 부-자율, 모-자율의 관찰점수를 지표변수로, 사회적 지지는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의 관찰점수를 지표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자아존중감1, 자아존중감2의 관찰점수를 지표변수로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적응은 학교규범준수태도, 학교흥미도 하위척도를 지표변수로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일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관계는 최초로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로 자녀는 부모로부터 행동의 모방과 동일시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배우며, 부모가 어떠한 행동양식과 가치관을 가지는가에 따라 인지적, 정서적 성장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행동과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부모-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관계로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부모의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격려와 칭찬, 신뢰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생기게 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더 잘 적응하게 되고, 이는 아동의 대인관계, 학교적응과 나아가 사회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특히 자녀를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하여 자율적인 행동을 허용하는 모습의 부모양육태도는 아동이 좀 더 즐겁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자율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고, 자율적일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한 하미화(2009)와 홍정미(2008)의 연구와 그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아동의 부모는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자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다양한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세심한 배려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부모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일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이고,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은 최초의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는 부모로부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재화하고, 부모의 행동 및 태도를 모방학습 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율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지닌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자유를 허용하고, 자기 확신적인 자신감이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하고, 이것은 학령기 아동인 자녀의 학교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일반 가정 아동과는 다른 가족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경우,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학교에서의 적응뿐 아니라 대인관계 및 자신이 처한 가정환경을 수용하는데도 중요한 변인이 되리라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Coopersmith(1967),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차유림(2000)의 연구와 그 맥을 같이하며,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은혜(2009)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진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크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 아동의 경우,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 학교생활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친구와 교사는 그들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자원이 된다. 다문화 가정 아동에게 있어 가정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일차적인 장소로 가족원의 사랑과 지지가 남들과 다른 배경을 가진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 해 긍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친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비슷한 또래만이 가질 수 있는 고민과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정서적 일치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은 자신이 다른 또래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또한 학교에서 맺게 되는 교사와의 관계 역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교사의 칭찬과 격려, 지지는 다른 어떠한 지지체계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교사의 인정과 관심을 받은 아동은 좀 더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학업성취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바람직한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가족지지가 높을수록(서정혜, 2009; 안은미, 2007), 친구지지가 높을수록(고유미, 2009; 정현영, 2006), 교사지지가 높을수록(박민서, 2007; 제갈종기, 2007) 학교에 더 잘 적응한다는 연구들과 그 맥을 같이하며,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변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동들이 지각하는 주요타인인 가족, 친구, 교사의 따뜻한 배려와 격려, 관심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아동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되고, 이것은 학교생활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다문화 가정 아동이 학교에서 잘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형성되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는 김관희(1997), 박은혜(200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아동 자신이 중요한 타인으로 여기는 가족, 친구, 교사로부터 긍정적인 지지를 받음으로써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감이 충만해져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서도 적극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주요타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부모양육태도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족, 친구, 교사)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며,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의 성장 발달과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자율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이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지원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다문화 가정 아동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자아존중감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및 다문화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과 친구와 교사의 관심과 사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가족, 친구, 교사),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통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을 살펴보았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여러 형태의 다문화 가정 중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으로 이루어진 가정만을 한정적으로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가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기 보고식 설문방법으로 학교생활적응을 평가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나 교사의 평가 및 연구자의 면접 등을 통한 심층적이고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다문화 가정 아동,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참 고 문 헌

강유진, 문재우. (2005). 청소년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요

- 인의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6(1), 283-315.
- 고유미. (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외국인 어머니 가정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 (2009).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 김경란. (2007). 다문화가정자녀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관희. (1997).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 (2009).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순희. (2002). 일반계 고등학교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오남. (2005).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갈등, 양육태도가 자녀의 문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2(4), 83-104.
- 민애경. (2005). 집단미술치료가 이주노동자자녀의 우울감 감소에 미치는 효과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하영, 권기남. (2004).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5(2), 81-92.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학지사.
- 문은식. (2005). 중학생의 정서지능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발전논집**, 147-162.
- 박민서. (2007).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솔지. (2010). 다문화가정자녀의 자아존중감과 학습동기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혜. (2009).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지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 유연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
- 서정혜. (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개념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영혜. (1992). 부모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인섭. (1989).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서울: 양서원
- 신정희. (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접변태도,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혜정.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효선. (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환경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영립. (1992). 가정의 심리적 환경 변인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은미. (2007).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성배. (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학회지**, 32(3), 61-83.
- 유경희. (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환경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주. (199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행동문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성현. (1997). 자기표현훈련이 소극적인 아동의 자기개념 형성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주. (2007).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윤호. (2009).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을 높이는 애착,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관한 연구-일반가정 아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아. (2009). 청소년의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심리적

- 및 행동적 부적응.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민. (2009).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자아정체감,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구조.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8(5), 1021-1033.
- 이지애. (2008).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비교연구-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훈진. (1999).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 (2000). 애착과 대학생의 정체감 발달(2). **한국심리학회지**, 13(3), 141-157.
- 전병제. (1974). 자아개념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 107-124
- 전푸르나. (2010).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정자녀의 학교적응 비교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은주. (2005).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기효능감과 자아개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영. (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아시아 여성과 한국 남성의 이중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제갈종기. (2007).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학교적응.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유림. (2000). 아동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보가, 권귀연. (1993).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1). **대한가정학회지**, 31(2), 41-54.
- 최옥희. (2007). 생태학적 변인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진도. (2005).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부모 양육태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08). **인구동태조사**.
- 통계청. (2009). **혼인통계결과**.
- 하미화. (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일보(2009). 다문화가정 올바른 인식을.
- 한순옥, 손화희. (2001). **방과후 자아존중감 프로그램**. 서울: 양서원.
- 한정애. (2009).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과정분석.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행정안전부. (2009).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 홍정미. (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and Company.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Rohner, R. P. (1980). Worldwide tests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An overview. *Behavior Science Research*, 15(1), 1-2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집 수 일 : 2010. 10. 27.
수정완료일 : 2010. 11. 19.
게재확정일 : 2010. 11. 30.